



## 에이즈의 역사 I

이제 에이즈는 인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감염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에이즈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살펴보고 어느 질병과 같이 에이즈 또한 인류의 힘으로 극복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및 정리 신수민 · 본회 사업부장

### 1970년대

이 시기의 에이즈는 “침묵”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HIV/AIDS의 사례가 드물지만,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과거에 보관되었던 혈액을 통해 HIV/AIDS가 1970년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 관찰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유행경향은 1970년대 중반과 말기사이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5개 대양주(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로 퍼져나갔고,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예방법을 알지 못했던 이 시기에 대략 100,000 ~ 300,000명 정도가 감염되지 않았나 추정되고 있다.<sup>1)</sup>

### 1981년

1981년봄, 뉴욕의 젊은 동성애자 8명에게서 더욱 악성 의카포지 육종<sup>2)</sup>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주폐포자충 폐렴<sup>3)</sup>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주폐포자충 폐렴 발생 보고가 점차 늘어났고, 이 질병의 치료제인 Pentamine에 대한 요청도 늘어났다.

1981년 6월에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5개의 주폐포자충 폐렴이 남성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대부분 이 발표가 에이즈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지만, 더 정확히 분석하자면, 이것을 전 세계가 에이즈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질병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었고, 특히 전파경로에 대한 우려는

1) Jonathan Mann (1989)

2) 카포지 육종(Kaposi Sarcoma) : 주로 동유럽유대인 계통의 장·노년층 남성들에게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하던 종양. 에이즈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악성형태로 진행됨

3) 주폐포자충 폐렴(Pneumocystis pneumonia) : 원인균인 주폐포자충은 세균으로 임상생화학에서 3 ~ 4살 정도(영·유이기)에 공기를 통해 우리 폐에 들어와 기생관계를 유지한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질환을 숙주에게 가져다주지 않지만,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렴을 일으키는 감염증을 일으킨다.



또 12월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사례가 보고되었다.

### 1982년

연초에 이 질환에 대한 이름도 없었다. 예를 들면, “게이 병(gay compromise syndrome)”, “림프종(lymphadenopathy : 임파선 종대)”, “게이암(gay cancer)”, “지역사회에서 얻은 면역체계 부기능(community-acquired immune dysfunction)”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6월 즈음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자들은 이 질환이 성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에 의한 감염증이 아닐까 제시하기도 하였다.

7월초까지 약 23개의 주에서 452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7월말에 혈우병이 있는 아이티(Haiti) 사람에게서도 보고되었다. 8월에 드디어 이 새로운 질환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

12월에 20개월 된 유아가 여러 번의 수혈을 받은 후에 이즈와 관련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에이즈는 원인균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혈액 안전관리와 관련된 걱정 소리가 높아져갔다. 12월에 역시 에이즈의 첫 번째로 수직감염으로 생각되는 감염사례가 미국 질병관리

본부에 보고되었다. 연말에 가서 에이즈는 어느 특정한 인구집단에서만 발견되는 질환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유럽의 국가들에서 보고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치명적인 소모성 질환을 가진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 1983년

1월에 에이즈가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해 전파된 여성들에게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 전파예방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특히, 혈우병 환자에게 공급되는 응고인자와 수혈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였다. 왜냐하면, 심한 경우에 한 혈우병 환자가 약 50,000명의 피로 만들어진 응고인자를 수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

5월에 프랑스의 파스티르 연구소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검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당시에 이 뉴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이 샘플은 미국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져서 림프종 관련 바이러스(LAV : Lymphadenopathy-associated virus)로 명명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중들의 전파경로에 대한 두려움은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쳐서, 어린이가 감염된 것은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였다는 믿음이 강해졌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경찰이 에이즈가 의심되는 환자를 다룰 때는 특수한 마스크나 장갑을 끼고 환자들을 다루게 되었다. 불안이 증가하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전파경로에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대중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중앙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에게서 에이즈가 발생하였고, 영국, 서독, 덴마크 등에서는 동성애자, 특히 미국인과의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에서 많은 에이즈 사례가 보고되었다. 9월에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즈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헌혈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잠비아와 자이레에서는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인 카포지육종이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다. 벤기에에서 예전에 건강하던 아프리카인들이 기회감염(주폐포자충 폐렴, 크립토코코스 감염증, 카포지육종 등)증이 발병되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있었으며,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양상과 비슷하였고, 또한 이들에게는 동성애의 경험, 수혈의 경험이나 마약주사 사용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로 드러났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연구는 이성애자들 간의 성접촉이 위험요소로 제기되었고, 자이레 정부는 에이즈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0월에 유럽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회의가 덴마크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미국의 2,803건의 에이즈 사례를 보고하였다. 11월에 글로벌 에이즈 상황 사정에 대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전 세계 에이즈에 대한 감시체계 설치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미국, 캐나다, 15개 유럽국가, 아이티, 자이레 7개의 남미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에서 발생하였다고 통합보고되었다.

## 1984년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례의 에이즈 전파 경로를 보며 "환자 0(Out of California)"를 알아냈다. 즉, 이 환자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다니면서 감염원이 되었다는 주

장이었다. 이 연구로 에이즈는 전염성 질환의 패권을 보였다. 4월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메이슨 박사는 에이즈의 원인을 찾아냈다고 보고하고, 2년 이내에 에이즈에 대한 백신이 나와 실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여 이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적이고 희망적으로 비추어졌다. 그 날 미국의 겔로(Robert Gallo) 박사는 HTLV-III(LAV와 똑같은 바이러스)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하였다. 5월 4일 겔로 박사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5월 17일에 이미 진단시약 회사들이 진단시약을 개발할 면허 신청을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에이즈 전파 경로에 대한 대중의 염려는 증가되었다. 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게이공중목욕탕과 사설 섹스클럽은 문을 닫았고,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은 시민의 권리(Civil Rights)를 침해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1984년 말에 미국 내에서 총 7,699사례의 에이즈가 보고되었고, 그 중 3,665명이 사망하였다. 유럽에서는 762사례가 보고되었고, 영국에서는 108건의 사례와 그 중 46건의 사망이 보고되었다.

## 1985년

1월에 LAV와 HTLV-III에 대한 자세한 연구보고가 있었는데, 3월에 그 두 개의 바이러스가 똑같은 바이러스임이 명확해졌다. 또한 3월에 미국 식약청은 에이즈 진단시약에 대한 면허를 처음으로 주었다. 그 검사는 LAV/HTLV-III의 항체 여부를 검출해내는 검사였고, 이 항체가 존재하는 혈액은 헌혈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 검사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되었다. 혈액유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시행과 대중이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홍보 방안,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비밀보장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사항이었다.

4월에 2,0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틀랜타에서 첫 번째 국제 에이즈회의(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가 열렸다. 가장 중요시 되었던 주제는 에이즈 항체검사(HTLV-III/LAV test), 국제적 에이즈 현황, 이성 애틀랜타 전파의 범위였다.

영국의 탈보이드 프레스(Talboid press)에서 에이즈에 관련되어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여 대중들의 걱정을 부추겼다. 몇몇 신문들은 편견이 더 담긴 내용을 실기도 하였다. 철우병 환자는 “결백한 희생양(innocent victim)”이라고 취급되고 동성애자들이나 마약사용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질환에 이환되었다고 분류되었다. 9살짜리 철우병 에이즈 감염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으나 그 학교에 소속된 몇몇 학생들은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당시 13살이던 라이언 화이트(Ryan White)가 에이즈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9월 17일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10월 3일에 영화배우인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사망하였고, 이로써 유명인사가 처음으로 에이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0월부터 영국의 헌혈의 집에서는 헌혈되는 모든 혈액에 대하여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악성소모성 질환의 원인균이 HTLV-III으로 밝혀졌고 이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역학조사결과 가장 최초로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악성소모성 질환이 에이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했다. 12월에 프랑스의 파스퇴르 연구소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특허와 이익금에 대한 공동소유를 요청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중국에서 첫 번째 에이즈 사례가 보고되었고 연말에 20,303건의 에이즈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었다.

## 1986년

3월에 에이즈 캠페인이 대중을 타겟으로 하여 “Don't Aid AIDS(에이즈를 돕지말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영국정부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아직까지도 에이즈 바이러스 이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즉,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가 명명한 LAV와 미국의 켈로 박사가 명명한 HTLV-III로 부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5월에 개최된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Taxonomy of Viruses 회의에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로 명명하기로 해결하였다.

8월에 미국연방정부는 최초로 에이즈라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준 고용주를 고발하였다. 한 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차별한 간호사를 해고시켰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시민의 권리를 어기는 결과로 여겨졌다. 9월에 에이즈 치료제인 아지도민(AZT)<sup>5)</sup>의 임상실험 결과는 병의 진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에이즈 치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AZT 임상실험은 AZT를 복용하는 환자 그룹과 위약(플라세보 : Placebo<sup>6)</sup>) 그룹으로 분류하여 적용해 본 결과, 6개월 후에 AZT 복용 그룹에서는 단 한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여,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19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임상실험은 매우 초기에 그 실험을 멈추었는데, 그 이유는 위약을 공급받는 그룹의 생존 기회를 줄이므로 비도덕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말에 전 세계 85개국에서 총 38,401 에이즈 사례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었다.

자료출처\_www.averil.org

4) 환자 0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호에 소개되는 1987년 사건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

5) AZT는 1964년에 인공적으로 합성되어 항암제로 제조되었으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정되었었다.

6) Placebo: 진짜 약을 복용하는 그룹과 대조되어 가짜 약을 줌.